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주체사상으로

튼튼히 무장하자!

# 로동신문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기관지

제50호 [루게 제23367호] 주체100(2011)년 2월 19일 (토요일)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사상과 령도를 한마음

한뜻으로 받들어나가자!

##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 정월대보름에 즈음하여 중국동지들과 함께 은하수관현악단의 음악회를 관람하시었다

조선로동당 총비서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위원장이신 우리 당과 우리 인민의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조종 두 나라 인민의 전통적인 민속명절인 정월대보름에 즈음하여 우리 나라에 와있는 중국동지들과 함께 17일은하수관현악단의 음악회를 관람하시었다.

뜻깊은 음악회가 진행되는 만수대에 술극장은 피로써 맺어진 조종친선의 뜨거운 열기로 하여 세차게 끓어번지고있었다.

우리 당과 우리 인민의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극장관람석에 나오시자 우렁찬 환호를 울리는 전체 관람자들은 정력적인 선군령도로 민족번영의 대전성기를 펼쳐주시고 조종친선의 강화발전애 불멸의 공헌을 하신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최대의 영예와 가장 뜨거운 축하의 인사를 드리면서 열광적으로 환영하시었다.

김정일동지께서는 열광의 환호를

울리는 관람자들에게 따뜻한 답례를 보내시며 민속명절을 맞는 그들을 열렬히 축하하시었다.

당과 국가, 군대의 책임일군들인 김정은동지, 리영호동지, 김영춘동지, 김국태동지, 김기남동지, 최태복동지, 김경희동지, 강석주동지, 장성택동지, 김정각동지, 김양진동지, 김영일동지, 박도춘동지, 최홍해동지, 태종수동지, 김평해동지, 문경덕동지, 주규창동지, 우동숙동지, 김창섭동지와 문학예술, 출판보도부문의 일군들이 음악회를 함께 보았다.

또한 음악회에는 우리 나라 주재 중화인민공화국 특명전권대사 류홍제동지와 대사관성원들, 중국의 류학생들과 실습생들, 평양에 체류하고있는 중국손님들이 초대되었다.

음악회무대에는 합창 《우리 민족제일일세》, 《강성부흥아리랑》, 혼성 2중창 《사랑가》, 여성 3중창 《아직은 말 못해》, 여성 3중창 《사회주의 너를 사랑해》, 남성 독창

과 남성방창 《군밤타령》, 남성독창 《아름다운 생의 자욱 새기여가자》, 민족기악과 바얀을 위한 관현악 《통일무지개》, 합창 《위대한 내 나라》, 《전선에서 만나자》, 중국노래들인 녀성 6중창 TV연속극 《모안영》의 주제가, 《바다는 나의 고향》, 녀성독창 《군항의 밤》, 《장강의 노래》, 소해금협주곡 《량산백과 축영대》, 피아노협주곡 《황하》 등 다채로운 종목들이 울렸다.

공연을 통하여 출연자들은 아버지장군님의 현명한 령도따라 비약의 한길로 발달육치고있는 우리 인민의 영웅적기상을 격조높이 노래하시었다며 두 나라 령도자들의 깊은 관심속에 날로 더욱 공고발전되고있는 조종친선의 불패성을 힘있게 과시하시었다.

두 나라 인민들의 풍만한 민족적 정서와 광만, 혁명적열정이 넘쳐흐르는 공연을 보면서 관람자들은 사회주의건설을 힘차게 다그치며 평화와 민주주의, 민족적독립과 자주화를 위

한 인류의 공동위업을 촉진하는데 적극 기여할 불타는 결의를 다짐하시었다.

음악회는 시종 조종 두 나라 인민들의 친선의 정이 뜨겁게 끓이는 가운데 진행되었다.

공연이 끝나자 또다시 환호성이 터져올라 장내를 진감하였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열광적으로 환호하는 출연자들과 관람자들에게 답례를 보내시며 공연성공을 축하하시었다.

공연성공을 축하하여 우리 나라 주재 중화인민공화국대사관 성원들이 무대에 올라 출연자들에게 꽃바구니를 전하시었다.

김정일동지께서는 은하수관현악단의 예술인들이 혁명적인 창조기풍을 발휘하여 훌륭한 음악회를 진행한데 대하여 커다란 만족을 표시하시면서 공연성공을 높이 평가하시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이날 저녁 정월대보름을 맞는 대사

관성원들을 위하여 연회를 베푸시었다.

김정일동지께서는 연회석상에서 우리 나라 주재 중화인민공화국 특명전권대사를 비롯한 대사관성원들과 따뜻한 담화를 나누시었다.

김정일동지께서는 조종친선협조관계를 보다 높은 단계로 발전시키는데 크게 기여한 주조 중화인민공화국대사관 성원들의 수고와 적극적인 노력을 평가하시었다.

석상에서 대사는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강성대국건설대전을 진두지휘하시는 것처럼 바쁘신 속에서도 귀중한 시간을 내어 자기들과 함께 공연을 보아주시고 연회까지 차려주시는데 대해 심심한 감사를 드리면서 조종친선의 끊임없는 강화발전을 위하여 적극 노력할 결의를 피력하시었다.

연회는 친선의 정 넘치는 화기에 애한 분위기속에서 진행되었다.

본사정치보도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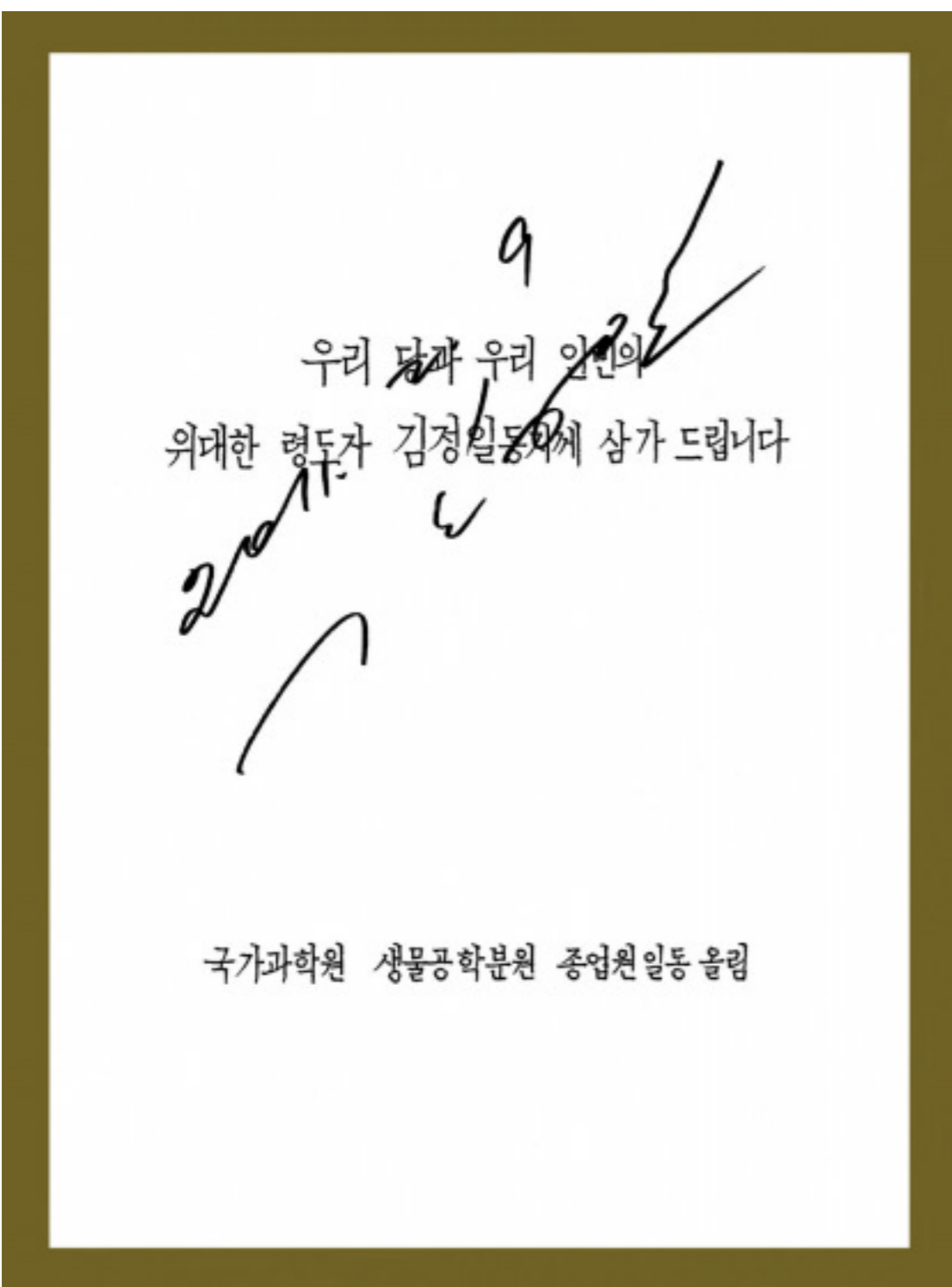
##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 국가과학원 생물공학분원 종업원들이 삼가 올린 편지를 보시고 진필을 보내시었다

우리 당과 우리 인민의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국가과학원 생물공학분원 종업원들이 삼가 올린 편지를 보시고 은정어린 친필을 보내시었다.

2011. 2. 9  
김정일

국가과학원 생물공학분원 종업원들은 자기들의 일터를 찾아주시고 대를 두고 길이 전할 사랑과 크나큰 은정을 안겨주시신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께 최첨단과전에서 영예로운 사명과 임무를 다해나갈 맹세를 담아 다음과 같은 편지를 삼가 올리였다.



### 우리 당과 우리 인민의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 삼가 드립니다

꿈에도 보고싶던 아버지장군님을 우리들의 일터에 모시였던 끝없는 감격과 반이안은 하늘같은 사랑에 감사의 마음 아뢰고싶어 삼가 이 글을 올립니다.

새해 정초부터 인민생활향상대진군을 진두지휘해나가는 위대한 장군님께서 우리 분원을 찾으시고 생물공학발전의 귀중한 가르치심을 주신것은 우리들이 받아안은 영광중의 가장 큰 영광이며 최첨단과전에 펼쳐나선 온 나라 전체 과학자들에 대한 크나큰 믿음과 높은 기대의 표시입니다.

우리 생물공학분원이 창립된 첫날부터 오늘에 이르는 20년의 갈피마다에는 생물공학의 발전방향과 연구사업종차까지 제시해주시고 첨단설비들과 시약을 비롯한 가장 훌륭한 연구조건을 보장해주시면서 길을 걸음 손잡아 이끌어주시신 위대한 장군님의 뜨거운 손길이 어려웠습니다.

일찍이 세계적인판도에서 과학기술경쟁이 치열하게 벌어지고 과학기술발전이 나라의 흥망을 좌우하는 관건적문제라 나서고있는 시대적요구를 깊이 통찰하시고 생물공학분야에서 세계적수준을 돌파하기 위한 투쟁을 정력적으로 이끌어주시신 위대한 장군님의 현명한 령도가 있어 우리 과학자들은 유전자공학의 핵심기초기술과 피형전환기술을 비롯하여 인민생활과 경제강국건설에 적극 이바지할수 있는 연구성과들을 이룩할수 있었습니니다.

하건만 대소한의 맹만 추위도 마다하지 않으시고 우리 분원을 찾아오신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은연 시간 하나하나의 연구성과를 구체적으로 들어주시면서 생물공학발전에서 이룩된 모든 성과를 고스란히 우리들에게 돌려주시었습니다.

아버지장군님께서 발전된 몇개 나라의 독점물로 되고있던 유전자해석기술과 줄기세포의 분리배양을 우리의 기술, 우리의 힘으로 성공시키고 피형전환기술을 개발하여 연구결과를 확증한것을 비롯한 모든 연구성과들을 주의깊게 보아주시면서 대단하다고, 우리 과학자들이 참 땀했다고 거듭 높이 평가해주실 때 우리들은 크나큰 격정에 휩싸였습니다.

이직은 작은 싹에 불과한 연구결과와 착상들에 대하여 그러도 만족해하시며 인민생활과 강성대국건설에 이바지할수 있는 연구과제들을 선정한것을 보면 우리 과학자들의 정신력과 창조정신, 애국열의를 알수 있다고 하시며 우리들을 고무격려해주시고 크나큰 기대를 표명하시는 영광의 그 순간 우리의 가슴가슴은 세차게 끓어번졌습니다.

오랜 시간에 걸쳐 분원의 연구사업정형을 일일이 료해하신 아버지장군님께서 은연에 이르러있어있으면 다 제기하라고 거듭 말씀하시면서 분원정사와 현대적인 온실, 시험목장과 시험포전을 비롯하여 제기되는 모든 문제를 즉석에서 다 풀어

주시었습니다. 더우기 생물공학분원은 나라의 과학기술을 발전시키고 인민생활을 향상시키며 경제강국을 일떠세우는데서 중요한 위치에 있다고 하시면서 분원창사를 새 세기의 요구에 맞게 손색없이 지어주어야 한다고 대대같은 은정을 베풀어주시었습니다.

받아안은 사랑과 믿음만 해도 꿈만 같은데 우리들의 마음속소원까지 헤아려 기념촬영을 해주신데 이어 분원의 실내온도가 낮다고 하시며 다녀가신 그날로 대형팬온풍기들을 선물로 보내주시니 고맙고 또 고마운 이 마음 무슨 말로 어떻게 감사의 인사를 드려야 하겠습니까.

분원이 생겨 20년, 오늘과 같이 꿈에도 생각지 못했던 사랑과 믿음을 받아안고 울고웃으며 감격의 바다를 펼친 때는 없었습니다.

사랑의 열기 한껏 내뿜는 팬온풍기앞에서 우리들은 평화 30℃를 오르려는 최선의 눈보라길에 장군님 입고계신 야전술옷이 눈앞에 어려와 뜨거운 눈물을 쏟고말았습니다.

우리모두가 아버지장군님의 높은 평가와 크나큰 사랑을 받아안은 오늘처럼 과학자로서의 긍지와 자부심을 가슴부듯이 느껴본적이 없었습니다. 자그마한 성과도 기특하게 여기시며 첨단과전의 선구자로 내세워주시는 위대한 장군님의 그 믿음속에 우리들은 온 나라가 다 알고 온 세상이 떠받드는 가장 행복한 과학자로 되었습니다.

장군님을 만나뵈은 그날의 감격이 품인가 생시인가싶어 장군님께서 다녀가신 발자취를 더듬어 볼수록 안겨주시신 사랑과 배려는 그 얼마나고 해놓은 일은 또 얼마인가 하는 황시의 물음앞에 우리는 커다란 자책감으로 모태킵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심혈과 로고를 바치시어 주체비탈론공업을 일떠세우시고 주체철, 주체비료의 성공과 대개도간성지의 기적을 안아오시며 강성대국건설의 토대를 하나하나 마련해가실 때 휴한삼, 팜 한방을 보태지 못한 우리들이었습니다. 혁명의 년대와 년대를 넘어 나라의 보배로, 금방석에 앉혀야 할 귀중한 인재로 내세워주시신 아버지수령님과 경애하는 장군님의 사랑을 독차지하면서도 조국의 큰 짐을 조금이라도 덜겠다는 전사의 도리보다는 옥성과 어리광만 부려온 철부지자식이 바로 우리들이었습니다.

하나 오늘 가셔야 할 대구모공장, 기업소들과 협동농장들, 만나주셔야 할 혁명전사들이 많고 많아요 아버지장군님 우리 분원에 찾아오시어 우리들에게 비약의 날개를 달아주시고 강성대국건설의 착취명령으로 내세워주시는 그 숭고한 뜻을 똑똑히 알았습니다.

우리 당의 최첨단과사상을 깊이 심어주시고 김정일민족의 자존심을 더욱 굳게 하여주시는 경애하는 장군님의 간곡한 가르치심에 우리들은

새롭게 눈을 뜨고 시대앞에 지닌 역사적사명과 자각을 다시금 깊이 새겨안았습니다.

경애하는 장군님 장군님의 귀중한 말씀과 뜨거운 사랑은 우리들에게 세계를 더디고 올라갈 민족적자존심과 강자의 배심을 더 굳게 하여주시었고 사회주의강성대국건설의 승리를 하루빨리 앞당겨갈 불굴의 신념을 더욱 굳게 다져주었습니다.

이제는 마땅히 김정일민족의 후손답게 아버지수령님의 넘넘이며 장군님의 리상인 우리의 높은 목표를 향하여 최첨단과전의 앞장에서 은빛을 강고리 바치며 더 높이, 더 빨리 힘껏 달려나갈것입니다.

우리들은 최첨단기술인 생물소편제작기술과 줄기세포기술연구를 짧은 기간에 완성하여 이 분야에서 세계적매편을 쫓겠습니다.

이와 함께 이미 개발한 연구성과를 실천에 도입하기 위한 연구사업을 힘있게 벌려 위대한 장군님께서 주체 100(2011)년 1월 19일 현지지도에서 제시하신 강령적과업을 결사관철하겠습니다.

우리는 밭은 자기 땅에 불이고 눈은 세계를 보는 넓은 혁신적인 안목을 가지고 두뇌전, 기술전을 벌려 우리 나라를 과학기술강국으로 일떠세우는데 한몫 하겠습니다.

조국에 힘을 더해주고 조국의 키를 한층 든구어주는 소리치며 자랑할만 한 큰일을 해내고 아버지장군님을 또다시 우리 분원에 모실 영광의 그날을 손잡아 기다리겠습니다.

경애하는 장군님 우리 인민들에게 보다 큰 행복을 안겨주시려 끊임없는 현지지도의 길을 걸고계시는 장군님을 우리는 우리들의 마음 눈물에 젖고 로고를 덜어드리지 못한 죄책감으로 가슴은 저저됩니다.

강성대국건설승리의 그날을 앞당기기 위한 오늘의 투쟁에서 우리들은 수형결사옹위정신을 높이 발휘하여 위대한 장군님의 선군혁명명도를 충직하게 받들어나가겠습니다.

믿어주시시오, 그리고 더는 찬냉길, 험한 길을 걷지 말아주시시오.

장군님께서 안녕하심은 우리 과학자들, 온 나라 인민들의 더없는 행복이고 한결같은 소원입니다.

주체과학기술의 위창관란 미래를 위하여, 무궁토록 번영할 김정일강성대국의 빛나는 승리를 위하여 우리 당과 우리 인민의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부디 건강하시기를 삼가 축원합니다.

국가과학원 생물공학분원 종업원 일동 올림  
주체100(2011)년 1월 26일

# 운명도 미래도 다 맡기고 사는 영원한 어버이품

인민의 행복이 넘쳐나는 번영의 해로 될 뜻깊은 올해에 맞이한 경사스러운 2월의 명절!

승리의 신심과 락관에 넘쳐 높은 정치적열의와 빛나는 로력적성공과 민족최대의 명절을 맞이한 천만군민의 가슴마다에 당대표자회에서 개정된 조선로동당규약 서문의 구절구절이 숨엄히 울리고있다.

조선로동당은 계급로선과 군중로선을 철저히 관철하여 당과 혁명의 계급진지를 굳건히 다지며 인민의 이익을 옹호하고 인민을 위하여 복무하며 인민대중의 운명을 책임진 어머니당으로서의 본분을 다해나간다.

어머니품, 바로 이 말속에 우리 당의 위대한 령도자이신 경애하는 장군님의 거룩한 위인상이 숨엄히 어리어있고 절세의 위인을 높이 모신 우리 당의 참대모습이 소중히 비껴있다. 위대한 장군님을 우리 당의 최고수령이 높이 모신 크나큰 긍지와 자부심, 창건 첫날부터 오늘에 이르는 장구한 기간사기의 혁명적이며 인민적인 성격을 변함없이 고수하고 계승해나가고있는 우리 당에 대한 한없는 자랑과 고마움이 어머니당이라는 이 부름에 얼마나 뜨겁게 깃들어있는것인가.

위대한 장군님을 조선로동당 총비서로 변함없이 높이 모시고 민족최대의 명절인 뜻깊은 2월 16일을 경축하고 기적과 혁신의 불보살님처럼 절종같이 내달리는 우리 군대와 인민의 가슴가슴은 지금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어머니당의 품에 안겨 사회주의강성대국의 력사적위업을 빛나게 실현해가는 비길데 없는 긍지와 환희로 한껏 부풀어오르고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어머니당이라는 말속에는 우리 당에 대한 두려운 신뢰와 함께 장래운명까지 보살펴줄것을 바라는 인민들의 크나큰 기대가 담겨져있습니다.》** 로동계급의 당은 사회의 령도적정치조직이며 따라서 사회의사회에서

국가기관들과 모든 조직들이 인민에게 어떻게 복무하는가 하는것은 결국 당을 어떻게 건설하는가 하는데 달려있다.

우리 당력사에 빛나는 경애하는 장군님의 불멸의 령도업적을 돌이켜볼수록 당을 인민의 운명을 책임지고 보살펴주는 어머니당으로 더욱 강화발전시키신 위대한 정치가에 대한 열렬한 애복과 호모심으로 격정을 금할수 없다.

언제인가 일군들과 자리를 같이 하신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당일군들이 인민의 참된 총비시 될데 대하여 가르쳐주시면서 어머니와 같은 사랑으로 우리 인민모두를 보살펴주려는것이 자신의 심정이라고 절절히 말씀하시였다.

인민에 대한 이렇듯 뜨거운 사랑을 지니시고 우리 당을 인민을 위하여 복무하는 당으로 건설하고 일군들이 인민을 위하여 복무하는것을 좌우명으로 삼아야 한다는것을 드림없는 신조로 간직하고계시는분이 우리의 경애하는 장군님이시이다.

당의 정치는 령도자의 정치이다. 인민에 대한 열렬한 사랑을 지닌 위대한 정치가의 령도를 받는 당만이 인민의 절대적인 지지와 신뢰를 받을 수 있으며 혁명투쟁에서 성과를 이룩할수 있다.

인민을 정치의 대상이 아니라 주인으로, 선생으로 여기시는분, 인민의 행복을 위한 일이라면 둘어에도 뜻을 피우지 않는다는것을 삶의 좌우명으로 여기시는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사회주의는 과학이다》**를 비롯한 수많은 고전적저작들을 발표하시어 우리 당을 어머니당으로 강화발전시키기 위한 강령적지침들을 내놓으시고 가슴뜨거운 조치들을 취해주시는 사랑의 이야기가 우리 당건설사의 갈피마다에 얼마나 력력히 새겨져있는가. 이노해 합경남도구장병에방문해 찾으신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한 치료실에 설치된 최신형치료대를 보아 주실 때였다.

인내사에는 그 기대가 현대의과학학의 최신성과를 받아들여 제작한 기대라고 씩씩하였다. 그 기대를 들여올 때 의국의 의료진들은 다른 나라에서는 그 외관과리들의 진술치로설비로만 사는 기대를 조신에서는 지방도시의 병원설비로 사가는데 대하여 의문을 품지 못하였다고 한다. 수행한 일군들은 그에게 설비들에 대하여 설명해드리다가 이런 내용까지 되물었다. **“시중 만속한 물건을 들어주시던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우리 나라에서야 인민이 주인인데 인민들이 써야지 누가 쓰겠습니까, 바로 로동자들이 여기에 앉아야 합니다”**라고 뜨겁게 말씀하시였다.

인민의 행복에서 자신의 기쁨을 찾으신 인민의 행복을 위해서라던 그 무엇도 아끼지 않으시는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인민을 위하여 우리 당력사에 수놓으신 이런 감동깊은 사랑의 화폭들을 어찌 다 전할수 있으랴. 서해바다에 조개잡이갔다가 파도에 밀리어 떠돌던 이물없는 한 처녀의 생명을 구원하기 위하여 인민군 비행대와 함정들까지 출동시켜주신 사실, 뜻밖의 일로 중대에 빠진 로동자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 직승기와 려객기까지 띄우게 하신 사연, 망망대해에서 금방을 만나 어쩔수 없이 잘못되게 되었고 누구나 포기했던 두 선원의 생명을 위해 대륙과 대양을 무대로 하는 치료작전을 펼치시어 기적으로 소생시킨 이야기...

우리는 잊을수 없다. 무더기비로 광판하는 물살에 신의 주지주의 수많은 인민의 생명을 재산이 위험에 처하게 되었을 때 몸소 구조진투를 진두지휘하신 경애하는 장군님의 고마운 은정을.

하늘에서는 직승기가 날고 물 위에서 고속수송선과 수륙양용장갑차들이 달려있으며 땅에서는 수송부대가 맹렬히 기동하여 립체전으로 인민의 생명재산을 지켜냈다.

지난해 큰물피해때에도 우리 당의 은혜로운 그 사랑은 자연의 광풍을

어머니의 따뜻한 품으로 막아주었으며 그 품에서 태어난 새생명이 하늘가에 떠뜨린 고고성은 그대로 천나라에서는 그 외관과리들의 진술치로설비로만 사는 기대를 조신에서는 지방도시의 병원설비로 사가는데 대하여 의문을 품지 못하였다고 한다. 수행한 일군들은 그에게 설비들에 대하여 설명해드리다가 이런 내용까지 되물었다. **“시중 만속한 물건을 들어주시던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우리 나라에서야 인민이 주인인데 인민들이 써야지 누가 쓰겠습니까, 바로 로동자들이 여기에 앉아야 합니다”**라고 뜨겁게 말씀하시였다.

인민의 행복에서 자신의 기쁨을 찾으신 인민의 행복을 위해서라던 그 무엇도 아끼지 않으시는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인민을 위하여 우리 당력사에 수놓으신 이런 감동깊은 사랑의 화폭들을 어찌 다 전할수 있으랴. 서해바다에 조개잡이갔다가 파도에 밀리어 떠돌던 이물없는 한 처녀의 생명을 구원하기 위하여 인민군 비행대와 함정들까지 출동시켜주신 사실, 뜻밖의 일로 중대에 빠진 로동자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 직승기와 려객기까지 띄우게 하신 사연, 망망대해에서 금방을 만나 어쩔수 없이 잘못되게 되었고 누구나 포기했던 두 선원의 생명을 위해 대륙과 대양을 무대로 하는 치료작전을 펼치시어 기적으로 소생시킨 이야기...

우리는 잊을수 없다. 무더기비로 광판하는 물살에 신의 주지주의 수많은 인민의 생명을 재산이 위험에 처하게 되었을 때 몸소 구조진투를 진두지휘하신 경애하는 장군님의 고마운 은정을.

하늘에서는 직승기가 날고 물 위에서 고속수송선과 수륙양용장갑차들이 달려있으며 땅에서는 수송부대가 맹렬히 기동하여 립체전으로 인민의 생명재산을 지켜냈다.

지난해 큰물피해때에도 우리 당의 은혜로운 그 사랑은 자연의 광풍을

어머니의 따뜻한 품으로 막아주었으며 그 품에서 태어난 새생명이 하늘가에 떠뜨린 고고성은 그대로 천나라에서는 그 외관과리들의 진술치로설비로만 사는 기대를 조신에서는 지방도시의 병원설비로 사가는데 대하여 의문을 품지 못하였다고 한다. 수행한 일군들은 그에게 설비들에 대하여 설명해드리다가 이런 내용까지 되물었다. **“시중 만속한 물건을 들어주시던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우리 나라에서야 인민이 주인인데 인민들이 써야지 누가 쓰겠습니까, 바로 로동자들이 여기에 앉아야 합니다”**라고 뜨겁게 말씀하시였다.

인민의 행복에서 자신의 기쁨을 찾으신 인민의 행복을 위해서라던 그 무엇도 아끼지 않으시는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인민을 위하여 우리 당력사에 수놓으신 이런 감동깊은 사랑의 화폭들을 어찌 다 전할수 있으랴. 서해바다에 조개잡이갔다가 파도에 밀리어 떠돌던 이물없는 한 처녀의 생명을 구원하기 위하여 인민군 비행대와 함정들까지 출동시켜주신 사실, 뜻밖의 일로 중대에 빠진 로동자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 직승기와 려객기까지 띄우게 하신 사연, 망망대해에서 금방을 만나 어쩔수 없이 잘못되게 되었고 누구나 포기했던 두 선원의 생명을 위해 대륙과 대양을 무대로 하는 치료작전을 펼치시어 기적으로 소생시킨 이야기...

우리는 잊을수 없다. 무더기비로 광판하는 물살에 신의 주지주의 수많은 인민의 생명을 재산이 위험에 처하게 되었을 때 몸소 구조진투를 진두지휘하신 경애하는 장군님의 고마운 은정을.

하늘에서는 직승기가 날고 물 위에서 고속수송선과 수륙양용장갑차들이 달려있으며 땅에서는 수송부대가 맹렬히 기동하여 립체전으로 인민의 생명재산을 지켜냈다.

지난해 큰물피해때에도 우리 당의 은혜로운 그 사랑은 자연의 광풍을

소박한 감사의 말도 귀중히 들어주시고 애기이름을 지어달라는 평범한 녀석의 부탁도 든그렇게 받아주시는분, 바다바람에 뜬 너머사람들의 살결처럼 애아려주시고 산중초소명사들의 부업발동사도 격정해주시는분 ...

이렇듯 사려깊으신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령도하시는 우리 당을 어머니당이라고밖에 달리는 부를수 없는데 그것이 바로 이 땅에 뜨겁게 굽이치는 전인민적인 사상감정인것이다. 조선로동당의 최고수령이 그렇듯 위대한 령도자를 높이 모시였기에 우리 당은 어머니당으로 인민들의 끝없는 신뢰와 존경을 받고있다.

하기에 경애하는 장군님을 변함없이 조선로동당 총비서로 높이 모시고 올해의 가장한 인민생활향상대진군길에서 경사스러운 2월의 명절을 맞이한 천만군민의 가슴가슴에서 그러도 절절히 울려나오는것도 위대한 어머니당에 대한 다함없는 고마움의 노래, 어머니 우리 당이 바라는것은 하늘의 별도 따오려는 총정의 일념단심이 아니던가.

당의 성격과 사명, 활동원칙에 이르기까지 모든것을 인민을 위하여 복무하는 당만이 가질수 있는 가장 위대한 부름인 어머니당!

오직 영원한 김정일동지의 당, 조선로동당에 대한 한이 없는 부름속에서 우리 당의 철학적정신이 있고 인민적사랑의 향기가 있으며 력사의 고귀한 진리가 맥박치고있다.

술하의 수천만자식들의 운명도 미리 래도 다 맡아안고 기뻐하는 그 위대한 어머니품은 곧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의 은혜로운 사랑의 품이 아니던가.

우리의 인민의 행복을 위하여 받아나갔나 위대한 헌신의 장정을 뒤임없이 이어가시는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 이이제서 계시오 우리 당은 영원히 어머니당으로 존엄명철있게! 그 자애로운 부름과 더불어 조선로동당의 령도적전위, 불멸의 위력은 날로 힘있게 과시될것이다.

본사기자 김 준 혁

농업전선은 인민생활문제 해결의 생명선이다.

올해공공사업의 이 구절을 새겨볼수록 천만군민의 가슴마다에는 우리 인민들에게 보다 유족하고 행복한 생활을 안겨주시며 끊임없는 애국헌신의 강행군길을 이어가시는 경애하는 장군님에 대한 한없는 고마움과 그리움이 차넘친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부강조국건설과 인민의 행복을 위하여 모든것을 다 바쳐 살인하는것이 나의 삶의 목표이고 보람입니다.》**

언제인가 일군들과 자리를 같이 하신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노래 **《명사는 비이삭 설레이는 소리를 듣네》**에 대한 뜻깊은 말씀을 하시였다.

이제서야 1960년대와 1970년대에 우리 나라에서는 해마다 만풍년이 들었기때문에 인민들이 쌀걱정을 모르고 살았다고, 쌀걱정이 없는데도 **《명사는 비이삭 설레이는 소리를 듣네》**와 같은 훌륭한 노래도 나오게 되었다고 하시면서 자신께서는 그 노래를 들으면서 어떻게 하면 농사를 잘 지어 우리 나라를 쌀이 남아돌아가는 나라로 만들것인가 하는 생각을 하였다고 가슴뜨겁게 말씀하시였다.

인민들의 생각은 깊어졌다. 한편의 노래를 통해서도 우리 인민의 행복한 미래를 구상하시는 경애하는 장군님. 노래가 나온지 많은 세월이 흘렀지만 오늘날도 우리 장군님 잊지 못해하시며 우리 평가해

주시는것도 바로 그때문이 아니던가.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지난 고난의 행군, 강행군시기마다에는 우리 인민들에게 불을 피우고서서 그때 나는 우리 인민들이 지금은 식량고생을 하고있지만 배불리 먹고 잘살 날이 반드시 온다는 확고한 신념과 의지를 가지고 모진 고난과 시련을 이겨나갔다고, 그런 신념과 의지, 미래에 대한 락관이 있었기에 우리는 고난의 행군, 강행군을 이겨내고 오늘은 사회주의강성대국건설을 위한 새로운 진군길을 다그쳐나갈수 있게 되었다고 힘있게 말씀하시였다.

선군의 보검으로 고난과 시련의 인덕을 과감히 뿜고 헤쳐서 인민의 행복이 더욱 활짝 꽃피어나는 봄날을 안아오신 위대한 선군명장을 우리로써 일군들은 품어오르는 격정을 금할수 없었다.

그날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확신으로 넘치신 어조로 우리는 어떻게 하나 농사를 잘 지어 노래 **《명사는 비이삭 설레이는 소리를 듣네》**에 있는것처럼 해마다 만풍년을 이룩하시면서 자신께서는 그 노래를 들으면서 어떻게 하면 농사를 잘 지어 우리 나라를 쌀이 남아돌아가는 나라로 만들것인가 하는 생각을 하였다고 가슴뜨겁게 말씀하시였다.

인민들의 생각은 깊어졌다. 한편의 노래를 통해서도 우리 인민의 행복한 미래를 구상하시는 경애하는 장군님. 노래가 나온지 많은 세월이 흘렀지만 오늘날도 우리 장군님 잊지 못해하시며 우리 평가해

주시는것도 바로 그때문이 아니던가.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지난 고난의 행군, 강행군시기마다에는 우리 인민들에게 불을 피우고서서 그때 나는 우리 인민들이 지금은 식량고생을 하고있지만 배불리 먹고 잘살 날이 반드시 온다는 확고한 신념과 의지를 가지고 모진 고난과 시련을 이겨나갔다고, 그런 신념과 의지, 미래에 대한 락관이 있었기에 우리는 고난의 행군, 강행군을 이겨내고 오늘은 사회주의강성대국건설을 위한 새로운 진군길을 다그쳐나갈수 있게 되었다고 힘있게 말씀하시였다.

선군의 보검으로 고난과 시련의 인덕을 과감히 뿜고 헤쳐서 인민의 행복이 더욱 활짝 꽃피어나는 봄날을 안아오신 위대한 선군명장을 우리로써 일군들은 품어오르는 격정을 금할수 없었다.

그날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확신으로 넘치신 어조로 우리는 어떻게 하나 농사를 잘 지어 노래 **《명사는 비이삭 설레이는 소리를 듣네》**에 있는것처럼 해마다 만풍년을 이룩하시면서 자신께서는 그 노래를 들으면서 어떻게 하면 농사를 잘 지어 우리 나라를 쌀이 남아돌아가는 나라로 만들것인가 하는 생각을 하였다고 가슴뜨겁게 말씀하시였다.

인민들의 생각은 깊어졌다. 한편의 노래를 통해서도 우리 인민의 행복한 미래를 구상하시는 경애하는 장군님. 노래가 나온지 많은 세월이 흘렀지만 오늘날도 우리 장군님 잊지 못해하시며 우리 평가해

주시는것도 바로 그때문이 아니던가.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지난 고난의 행군, 강행군시기마다에는 우리 인민들에게 불을 피우고서서 그때 나는 우리 인민들이 지금은 식량고생을 하고있지만 배불리 먹고 잘살 날이 반드시 온다는 확고한 신념과 의지를 가지고 모진 고난과 시련을 이겨나갔다고, 그런 신념과 의지, 미래에 대한 락관이 있었기에 우리는 고난의 행군, 강행군을 이겨내고 오늘은 사회주의강성대국건설을 위한 새로운 진군길을 다그쳐나갈수 있게 되었다고 힘있게 말씀하시였다.

선군의 보검으로 고난과 시련의 인덕을 과감히 뿜고 헤쳐서 인민의 행복이 더욱 활짝 꽃피어나는 봄날을 안아오신 위대한 선군명장을 우리로써 일군들은 품어오르는 격정을 금할수 없었다.

그날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확신으로 넘치신 어조로 우리는 어떻게 하나 농사를 잘 지어 노래 **《명사는 비이삭 설레이는 소리를 듣네》**에 있는것처럼 해마다 만풍년을 이룩하시면서 자신께서는 그 노래를 들으면서 어떻게 하면 농사를 잘 지어 우리 나라를 쌀이 남아돌아가는 나라로 만들것인가 하는 생각을 하였다고 가슴뜨겁게 말씀하시였다.

인민들의 생각은 깊어졌다. 한편의 노래를 통해서도 우리 인민의 행복한 미래를 구상하시는 경애하는 장군님. 노래가 나온지 많은 세월이 흘렀지만 오늘날도 우리 장군님 잊지 못해하시며 우리 평가해

주시는것도 바로 그때문이 아니던가.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지난 고난의 행군, 강행군시기마다에는 우리 인민들에게 불을 피우고서서 그때 나는 우리 인민들이 지금은 식량고생을 하고있지만 배불리 먹고 잘살 날이 반드시 온다는 확고한 신념과 의지를 가지고 모진 고난과 시련을 이겨나갔다고, 그런 신념과 의지, 미래에 대한 락관이 있었기에 우리는 고난의 행군, 강행군을 이겨내고 오늘은 사회주의강성대국건설을 위한 새로운 진군길을 다그쳐나갈수 있게 되었다고 힘있게 말씀하시였다.

선군의 보검으로 고난과 시련의 인덕을 과감히 뿜고 헤쳐서 인민의 행복이 더욱 활짝 꽃피어나는 봄날을 안아오신 위대한 선군명장을 우리로써 일군들은 품어오르는 격정을 금할수 없었다.

그날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확신으로 넘치신 어조로 우리는 어떻게 하나 농사를 잘 지어 노래 **《명사는 비이삭 설레이는 소리를 듣네》**에 있는것처럼 해마다 만풍년을 이룩하시면서 자신께서는 그 노래를 들으면서 어떻게 하면 농사를 잘 지어 우리 나라를 쌀이 남아돌아가는 나라로 만들것인가 하는 생각을 하였다고 가슴뜨겁게 말씀하시였다.

인민들의 생각은 깊어졌다. 한편의 노래를 통해서도 우리 인민의 행복한 미래를 구상하시는 경애하는 장군님. 노래가 나온지 많은 세월이 흘렀지만 오늘날도 우리 장군님 잊지 못해하시며 우리 평가해

주시는것도 바로 그때문이 아니던가.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지난 고난의 행군, 강행군시기마다에는 우리 인민들에게 불을 피우고서서 그때 나는 우리 인민들이 지금은 식량고생을 하고있지만 배불리 먹고 잘살 날이 반드시 온다는 확고한 신념과 의지를 가지고 모진 고난과 시련을 이겨나갔다고, 그런 신념과 의지, 미래에 대한 락관이 있었기에 우리는 고난의 행군, 강행군을 이겨내고 오늘은 사회주의강성대국건설을 위한 새로운 진군길을 다그쳐나갈수 있게 되었다고 힘있게 말씀하시였다.

본사기자 리 금 분



항일혁명투사들이 지린현혁명투사관공원을 방문하고 있다.

재령군 강교리당위원회에서 당원들과 농장원들속에 우리 당의 선군혁명명도의 위대성을 깊이 체득시키기 위한 사상교양사업을 실시하게 진행해오고있다.

선군혁명명도업적을 깊이 체득시켜 준다. 이와 함께 일군들이 경애하는 장군님의 선군혁명명도의 위대성을 깊이있게 학습하는데 기초하여 당원들과 농장원들속에 들어가 사상교양사업을 적극적으로 하고있고 있다.

경애하는 장군님의 선군명도업적에 대한 일군의 이야기는 대중의 심금을 울리었다. 지금 이곳 당원들과 농장원들은 경애하는 장군님의 선군혁명명도를 더욱 충직하게 받아들여갈 뿐만아니라 당원들과 농장원들속에 선군정치의 민족의 존엄과 자주권을 굳건히 수호시키고 내 조국땅에 눈부신 비약의 전성기를 펼쳐가시는

본사기자 김 준 혁

# 당정책관철의 기수들로

인민생활향상과 강성대국건설에서 결정적전환을 일으키기 위한 오늘의 총공격전의 앞장에는 혁명의 지휘선원들인 우리 일군들이 서있다.

《인민생활향상대진군의 성과여부는 지휘선원들, 일군들에게 달려있다.》라는 훌륭한 공동사설에 담겨진 당의 의도를 심장에 새기고 더 높은 혁명열포 가슴을 품어는 그들의 모습에서 사람들은 절감한다. 우리 일군들을 불굴의 선봉투사로, 공격전의 기수로 키워주신 경애하는 장군님의 한없는 믿음과 뜨거운 사랑을.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일군들은 혁명의 지휘선원이며 선군혁명총진군대오의 기수입니다.》**

일군들은 당의 로선과 정책을 관철하기 위한 사업의 조직자, 지휘자이며 광범한 군중을 혁명과 건설에 힘있게 불려일으키는 교양자, 선도자이다. 강성대국건설에서 일군들이 지니고있는 책임과 역할을 누구보다 중시 하시는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우리 일군들이 혁명의 지휘선원으로서의 본분을 다해나갈데 하여 강조하시였다.

그때야 비로소 일군들은 포사격훈련을 거듭 보여주신 경애하는 장군님의 의도가 단순히 우리 혁명투쟁의 막강한 위력을 느끼도록 하기 위해서만이 아니였음을 깨닫게 되었다.

어버이수령님의 탄생 100돐이 되는 2012년에 강성대국의 대문을 기어올라올때 비상한 결단을 안으시고 몸소 력사의 땅 강산을 찾으신 새로운 혁명대교조의 불꽃을 지펴주시고 선군전리마가 창공높이 나래치

도록 하신 경애하는 장군님, 그 천리마에 오른 인민과 일군들에게 강성대국의 대문을 반드시 열어젖힐수 있다는 필승의 신심과 락관, 불굴의 용맹과 투지, 담력과 배짱을 안겨주시는 선군명장의 송고한 의도를 절감한 일군들의 입장은 세차게 고동쳤다.

격정에 넘쳐있는 일군들을 둘러 보시며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말씀하시였다. **“내가 최근 중요공장, 기업소들을 비롯한 여러 단위들을 련이어 현지지도하여 새로운 혁명대교조의 불길이 온 나라에 타번지도록 하였는데 각급 당조직들과 당일군들은 불길이 더욱 세차게 타오를수 있게 총공격의 역할을 잘하여야 한다. 용광로에 송풍기 때 바람을 쐬어야 불길이 세차게 타오르는것처럼 당조직들과 당일군들이 군대와 인민의 기세를 더욱 앙양시킬수 있게 바람을 불어넣어야 대교조의 불길이 활활 타오를수 있다”**

이와 함께 장군님께서 바라는 혁명의 투쟁기가 되시. 새해공공사업의 높이 받들고 대교조전투장들마다에서 타오르게 하여야 할 무거운 임무가 우리 일군들의 두어깨에 지워져있다. ...

그의 말씀은 일군들의 용맹을 팽방 울리었다.

본사기자 백 영 III

오늘 우리는 당의 부름따라 인민생활향상을 위한 총공격전을 벌리고있는 시기에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강명을 전포하신 력사적인 소위발포기일을 맞이하고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주제 63 (1974)년 2월 19일에 발표하신 이 로작은 주체의 기치밑에 계획된 우리 혁명을 끝까지 완성해나가기 위한 투쟁에서 빛나는 자리를 차지하는 기념비적문헌이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로작에서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사상을 주체의 사상, 리론, 방법의 전일적인 체계로 정식화하시고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를 우리 당의 최고강령으로 선포하시였다.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강명을 이 선포함으로써 어버이수령님의 혁명사상이 자주대국의 위대한 지도사상으로 더욱 빛을 뿌리게 되었고 우리 혁명이 그 어떤 시련과 난관도 뚫고 힘있게 전진할수 있는 위력한 무기가 마련되게 되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우리는 앞으로도 주체사상의 가치를 높이 들고 나가야 하며 혁명과 건설의 모든 분야에 주체사상을 철저히 구현하여야 한다.》**

로작이 발표된 때로부터 30여년이라는 세월이 흘렀다. 장군님께서 나날에 우리 군대와 인민은 위대한 장군님의 령도따라 주체의 기치를 높이 들고 세기와 세기를 이어 백승을 펼쳐왔다. 이 땅에 로동당시대의 일대 전성기를 펼친

다. 경애하는 장군님의 주체의 신념에 의하여 우리의 자위적국방력이 비상히 강화되고 사회생활의 모든 분야에서 우리 식, 주체식이 철저히 구현되고있다. 특히 경제강국건설을 위한 장엄한 대교조전군의 불길속에서 자위적경제의 위력이 날마다 강화되고있는것은 주체사상을 필승의 보검으로 틀어쥐고나가는 경애하는 장군님의 혁명적 령도자가 온다는 빛나는 결실이다.

1970년대와 1980년대, 고난의 행군, 강행군의 시련을 이겨내며 사회주의를 수호하고 강성대국건설을 위한 진격로를 열어나온 1990년대와 2000년대는 참으로 우리 조국청사에 승리와 영광으로 아로새겨진 년대기들이다. 지난 30여년의 빛나는 력사와 주체사상화의 포성이 온 나라를 진감하고있는 오늘날의 격동적인 현실은 어버이수령님의 혁명사상을 백승의 보검으로 틀어쥐고나가는 경애하는 장군님의 령도의 위대성에 대한 힘있는 파시로 된다.

오늘의 선군시대는 백두에서 개척된 주체혁명위업의 전면적승리를 위한 거창한 투쟁이 벌어지는 시대이다. 당과 혁명대오를 더욱 튼튼히 꾸리고 조국의 강성행진을 위한 투쟁에서 우리가 가야 할 길은 주체의 길이며 다른 길은 있을수 없다. 우리 당과 군대와 인민은 경애하는 장군님의 령도를 높이 받들고 주체사상이 가리키는 오직 한 길을 따라 영원히 백승의 력사를 수놓아갈것이다.

오늘의 선군시대는 백두에서 개척된 주체혁명위업의 전면적승리를 위한 거창한 투쟁이 벌어지는 시대이다. 당과 혁명대오를 더욱 튼튼히 꾸리고 조국의 강성행진을 위한 투쟁에서 우리가 가야 할 길은 주체의 길이며 다른 길은 있을수 없다. 우리 당과 군대와 인민은 경애하는 장군님의 령도를 높이 받들고 주체사상이 가리키는 오직 한 길을 따라 영원히 백승의 력사를 수놓아갈것이다.

오늘의 선군시대는 백두에서 개척된 주체혁명위업의 전면적승리를 위한 거창한 투쟁이 벌어지는 시대이다. 당과 혁명대오를 더욱 튼튼히 꾸리고 조국의 강성행진을 위한 투쟁에서 우리가 가야 할 길은 주체의 길이며 다른 길은 있을수 없다. 우리 당과 군대와 인민은 경애하는 장군님의 령도를 높이 받들고 주체사상이 가리키는 오직 한 길을 따라 영원히 백승의 력사를 수놓아갈것이다.

오늘의 선군시대는 백두에서 개척된 주체혁명위업의 전면적승리를 위한 거창한 투쟁이 벌어지는 시대이다. 당과 혁명대오를 더욱 튼튼히 꾸리고 조국의 강성행진을 위한 투쟁에서 우리가 가야 할 길은 주체의 길이며 다른 길은 있을수 없다. 우리 당과 군대와 인민은 경애하는 장군님의 령도를 높이 받들고 주체사상이 가리키는 오직 한 길을 따라 영원히 백승의 력사를 수놓아갈것이다.

오늘의 선군시대는 백두에서 개척된 주체혁명위업의 전면적승리를 위한 거창한 투쟁이 벌어지는 시대이다. 당과 혁명대오를 더욱 튼튼히 꾸리고 조국의 강성행진을 위한 투쟁에서 우리가 가야 할 길은 주체의 길이며 다른 길은 있을수 없다. 우리 당과 군대와 인민은 경애하는 장군님의 령도를 높이 받들고 주체사상이 가리키는 오직 한 길을 따라 영원히 백승의 력사를 수놓아갈것이다.

오늘의 선군시대는 백두에서 개척된 주체혁명위업의 전면적승리를 위한 거창한 투쟁이 벌어지는 시대이다. 당과 혁명대오를 더욱 튼튼히 꾸리고 조국의 강성행진을 위한 투쟁에서 우리가 가야 할 길은 주체의 길이며 다른 길은 있을수 없다. 우리 당과 군대와 인민은 경애하는 장군님의 령도를 높이 받들고 주체사상이 가리키는 오직 한 길을 따라 영원히 백승의 력사를 수놓아갈것이다.

오늘의 선군시대는 백두에서 개척된 주체혁명위업의 전면적승리를 위한 거창한 투쟁이 벌어지는 시대이다. 당과 혁명대오를 더욱 튼튼히 꾸리고 조국의 강성행진을 위한 투쟁에서 우리가 가야 할 길은 주체의 길이며 다른 길은 있을수 없다. 우리 당과 군대와 인민은 경애하는 장군님의 령도를 높이 받들고 주체사상이 가리키는 오직 한 길을 따라 영원히 백승의 력사를 수놓아갈것이다.

오늘의 선군시대는 백두에서 개척된 주체혁명위업의 전면적승리를 위한 거창한 투쟁이 벌어지는 시대이다. 당과 혁명대오를 더욱 튼튼히 꾸리고 조국의 강성행진을 위한 투쟁에서 우리가 가야 할 길은 주체의 길이며 다른 길은 있을수 없다. 우리 당과 군대와 인민은 경애하는 장군님의 령도를 높이 받들고 주체사상이 가리키는 오직 한 길을 따라 영원히 백승의 력사를 수놓아갈것이다.

오늘의 선군시대는 백두에서 개척된 주체혁명위업의 전면적승리를 위한 거창한 투쟁이 벌어지는 시대이다. 당과 혁명대오를 더욱 튼튼히 꾸리고 조국의 강성행진을 위한 투쟁에서 우리가 가야 할 길은 주체의 길이며 다른 길은 있을수 없다. 우리 당과 군대와 인민은 경애하는 장군님의 령도를 높이 받들고 주체사상이 가리키는 오직 한 길을 따라 영원히 백승의 력사를 수놓아갈것이다.

오늘의 선군시대는 백두에서 개척된 주체혁명위업의 전면적승리를 위한 거창한 투쟁이 벌어지는 시대이다. 당과 혁명대오를 더욱 튼튼히 꾸리고 조국의 강성행진을 위한 투쟁에서 우리가 가야 할 길은 주체의 길이며 다른 길은 있을수 없다. 우리 당과 군대와 인민은 경애하는 장군님의 령도를 높이 받들고 주체사상이 가리키는 오직 한 길을 따라 영원히 백승의 력사를 수놓아갈것이다.

오늘의 선군시대는 백두에서 개척된 주체혁명위업의 전면적승리를 위한 거창한 투쟁이 벌어지는 시대이다. 당과 혁명대오를 더욱 튼튼히 꾸리고 조국의 강성행진을 위한 투쟁에서 우리가 가야 할 길은 주체의 길이며 다른 길은 있을수 없다. 우리 당과 군대와 인민은 경애하는 장군님의 령도를 높이 받들고 주체사상이 가리키는 오직 한 길을 따라 영원히 백승의 력사를 수놓아갈것이다.

오늘의 선군시대는 백두에서 개척된 주체혁명위업의 전면적승리를 위한 거창한 투쟁이 벌어지는 시대이다. 당과 혁명대오를 더욱 튼튼히 꾸리고 조국의 강성행진을 위한 투쟁에서 우리가 가야 할 길은 주체의 길이며 다른 길은 있을수 없다. 우리 당과 군대와 인민은 경애하는 장군님의 령도를 높이 받들고 주체사상이 가리키는 오직 한 길을 따라 영원히 백승의 력사를 수놓아갈것이다.

오늘의 선군시대는 백두에서 개척된 주체혁명위업의 전면적승리를 위한 거창한 투쟁이 벌어지는 시대이다. 당과 혁명대오를 더욱 튼튼히 꾸리고 조국의 강성행진을 위한 투쟁에서 우리가 가야 할 길은 주체의 길이며 다른 길은 있을수 없다. 우리 당과 군대와 인민은 경애하는 장군님의 령도를 높이 받들고 주체사상이 가리키는 오직 한 길을 따라 영원히 백승의 력사를 수놓아갈것이다.

오늘의 선군시대는 백두에서 개척된 주체혁명위업의 전면적승리를 위한 거창한 투쟁이 벌어지는 시대이다. 당과 혁명대오를 더욱 튼튼히 꾸리고 조국의 강성행진을 위한 투쟁에서 우리가 가야 할 길은 주체의 길이며 다른 길은 있을수 없다. 우리 당과 군대와 인민은 경애하는 장군님의 령도를 높이 받들고 주체사상이 가리키는 오직 한 길을 따라 영원히 백승의 력사를 수놓아갈것이다.

오늘의 선군시대는 백두에서 개척된 주체혁명위업의 전면적승리를 위한 거창한 투쟁이 벌어지는 시대이다. 당과 혁명대오를 더욱 튼튼히 꾸리고 조국의 강성행진을 위한 투쟁에서 우리가 가야 할 길은 주체의 길이며 다른 길은 있을수 없다. 우리 당과 군대와 인민은 경애하는 장군님의 령도를 높이 받들고 주체사상이 가리키는 오직 한 길을 따라 영원히 백승의 력사를 수놓아갈것이다.

오늘의 선군시대는 백두에서 개척된 주체혁명위업의 전면적승리를 위한 거창한 투쟁이 벌어지는 시대이다. 당과 혁명대오를 더욱 튼튼히 꾸리고 조국의 강성행진을 위한 투쟁에서 우리가 가야 할 길은 주체의 길이며 다른 길은 있을수 없다. 우리 당과 군대와 인민은 경애하는 장군님의 령도를 높이 받들고 주체사상이 가리키는 오직 한 길을 따라 영원히 백승의 력사를 수놓아갈것이다.

오늘의 선군시대는 백두에서 개척된 주체혁명위업의 전면적승리를 위한 거창한 투쟁이 벌어지는 시대이다. 당과 혁명대오를 더욱 튼튼히 꾸리고 조국의 강성행진을 위한 투쟁에서 우리가 가야 할 길은 주체의 길이며 다른 길은 있을수 없다. 우리 당과 군대와 인민은 경애하는 장군님의 령도를 높이 받들고 주체사상이 가리키는 오직 한 길을 따라 영원히 백승의 력사를 수놓아갈것이다.

오늘의 선군시대는 백두에서 개척된 주체혁명위업의 전면적승리를 위한 거창한 투쟁이 벌어지는 시대이다. 당과 혁명대오를 더욱 튼튼히 꾸리고 조국의 강성행진을 위한 투쟁에서 우리가 가야 할 길은 주체의

# 위대한 장군님의 당사상사업령도업적을 더욱 빛내여나가자

## 주체사상, 선군사상교양을 주선으로 틀어쥐고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강령을 선포하시고 우리 당사상사업에서 위대한 전환의 리정표를 마련하신 력사의 그날로부터 어느덧 37년이 되었다. 세월이 흐르고 강산은 변하여도 력사적인 2월 19일로작에서 밝혀진 사상의 위대한 생활력은 더욱더 높이 발휘되고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를 실현하려면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주체사상으로 철저히 무장하고 언제 어디서나 주체사상이 가리키는 길을 따라 결렬히 싸워나가도록 하여야 합니다.》

강성대국건설의 총공세의 불바람이 일어나는 모든 단위, 모든 전투장마다에서는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우리 당의 주체사상, 선군사상으로 더욱 튼튼히 무장시키기 위한 사상교양사업이 힘있게 벌어지고있다.

—주체사상, 선군사상은 우리의 생명이다.

—주체사상, 선군사상이 가리키는 길은 강성대국건설과

선군혁명위업의 빛나는 승리의 길이다.

이런 철칙같은 신념을 안고 각지 당조직들과 당원들은 주체사상, 선군사상교양사업에 화력을 집중하고있다.

주체사상, 선군사상은 우리의 모든 사업에 열매처럼 판공되어야 한다는 관념밑에 각지 당조직들과 당원들은 당원들과 근로자들속에서 그에 대한 교양사업을 폭넓고 깊이있게 강도높이 벌리고있다.

각지 당조직들과 당원들은 주체사상, 선군사상의 원리와 내용은 물론 이 위대한 혁명사상을 틀어쥐고 이 땅위에 자랑찬 번영의 시대를 열어놓은 우리 혁명의 자주정치, 선군정치, 정당성과 생활력을 보여주는 실생활자료들을 수없이 찾아가지고 교양사업을 심화시키고있다.

이런 교양사업은 당원들과 근로자들에게 주체사상, 선군사상이 얼마나 정당하고 위대한가를 더욱 가슴깊이 느끼게 해주어 주체사상, 선군사상이 가리키는 길을 따라 힘차게 나아가길 신념과 의지

로 그들의 심장을 세차게 끓여 번지게 하고있다.

주체사상, 선군사상교양사업이 여러가지 형식과 방법으로, 창조적으로 진행되고있다. 당원들과 근로자들의 사상의식수준이 끊임없이 높아지고있는 현실은 사상교양사업의 형식과 방법을 부단히 개선해나갈 것을 요구하고있다.

김책체철합기업소와 흥남비료연합기업소를 비롯하여 인민생활대고조진군의 앞장에서 달려나가고있는 인민경제 선봉부분, 기초공업부문의 당조직들과 당원들은 현수생산공정으로 이루어진 자기 단위의 특성에 맞게 여러 계기와 공정의 생활에서 주체사상, 선군사상교양사업을 방법론있게 진행하여 그 실효를 높이고있다.

여러가지 도임들과 작업시작 전시간, 작업총화시간과 철철동 여러 공간들이 주체사상, 선군사상교양사업으로 일관되어 있다. 들끓는 현실과 생산자의 생활에서 주체사상, 선군사상 학습이 때때로 뻗어 나오는 생활의 한 부분으로, 하나의 습관처럼 되었다는 것을 보여주고있다.

다양한 형식과 방법의 주체사상, 선군사상교양사업은 늘 새맛이 나는 참신한것이어서 당원들과 근로자들의 심금을 울려주고있으며 그것은 그대로 그들의 사업과 생활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어 빛나는 현실로 꽃피게 하고있다.

주체사상, 선군사상을 생명선으로 틀어쥐고나가고있기에 우리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위대한 장군님의 현명한 령도 아래 조국땅 가는 곳마다에 자랑찬 창조물들을 수없이 일떠세울 수 있었다.

우리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주체사상, 선군사상을 보듬고 틀어쥐고나가고있으며 그 열매를 맺고 있는 위대한 기적도 능히 자신의 힘으로 창조할 수 있다는 확신과 승리의 신념에 넘쳐 오늘날의 총공전, 인민생활대고조진군을 더욱 힘차게 다그치고있는 것이다.

주체사상, 선군사상을 언제나 생명선으로 틀어쥐고나가는 우리의 앞에는 오직 승리와 영광만이 빛나게 될것이다.

본사기자 리종석

그들처럼 살며 투쟁하려는 생활이 대고조적진장 어디에서나 살고있다. 세기가 바뀌고 투쟁환경은 달라졌어도 일군들 누구나 그들을 거울처럼 비춰보며 자신들을 부단히 체격질하고있다.

그렇다.

1970년대는 결코 지나간 세월이 아니다. 그것은 위대한 장군님을 받들어 어떻게 일해야 하는가를 끝없이 깨우쳐주고 이끌어주며 언제나 우리앞에 있는 영원한 현대가 아니겠는가.

본사기자 리종석

《우리 초급당비서동무가 1970년대 당의 기초축성시기 일군들처럼 사업하고있기때문입니다.》

불편한 나에게는 1970년대는 말의 의미가 새롭게 부각되며 깊은 총동을 불러일으켰다.

한편 흘러간 시간은 되돌아

## 창성군 당 위원회에서

올해에 다시 한번 경공업에 박차를 가하여 인민생활향상과 강성대국건설에서 결정적전환을 일으키는데 대한 공동사실의 사상과 정신을 높여주고있으며 그것은 그대로 그들의 사업과 생활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어 빛나는 현실로 꽃피게 하고있다.

주체사상, 선군사상을 생명선으로 틀어쥐고나가고있기에 우리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위대한 장군님의 현명한 령도 아래 조국땅 가는 곳마다에 자랑찬 창조물들을 수없이 일떠세울 수 있었다.

우리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주체사상, 선군사상을 보듬고 틀어쥐고나가고있으며 그 열매를 맺고 있는 위대한 기적도 능히 자신의 힘으로 창조할 수 있다는 확신과 승리의 신념에 넘쳐 오늘날의 총공전, 인민생활대고조진군을 더욱 힘차게 다그치고있는 것이다.

주체사상, 선군사상을 언제나 생명선으로 틀어쥐고나가는 우리의 앞에는 오직 승리와 영광만이 빛나게 될것이다.

본사기자 리종석

어 혁명적으로, 전투적으로 일함으로써 지방공업발전에서 선봉적역할을 수행할데 대한 크나큰 믿음을 안겨주시었다.

군당 위원회는 경애하는 장군님의 크나큰 믿음과 사랑에 높은 실적으로 보답하도록 하기 위하여 우선 올해공동사업의 사상과 정신을 대중속에 깊이 침투시키는 한편 군에 갖는 아버지수령님과 경애하는 장군님의 불멸의 령도업적을 다시 한번 가슴깊이 새기고 지방공업발전에서 일대 양양을 일으키도록 대중을 힘있게 불러일으키고있다.

모두다 인민생활향상과 강성대국건설을 위한 생산선적대로! 김철의 호소에 군안의 모든 일군들과 당원들, 근로자들이 한결같이 화답해나갔다.

군당위원회는 식료공장, 직물공장을 비롯한 령도업적이 갖는 단위들이 올해공동사업에서 제시된 전투적과업수행에서 앞장에 서도록 조직정치사업을 짜고들고있다. 단위의 당조직들에서는 우리 당의 불멸의 령도업적교양을 큰 힘을 넣으면서 아버지수령님의 탄생 100돐이 되는 2012년까지 현대화수준을 한층 높이기 위한 통이 큰 작전을 펼쳐

다. 식료공장에서는 생산을 정상화하면서 설비들의 현대화와 생산건물들에 대한 보수전투를 통이 크게 벌리도록 하였다. 종이공장, 마대공장, 철제일용품공장, 화학일용품공장 등 군안의 모든 지방공업공장들에서도 전국의 본보기가 되기 위한 작전을 펼쳐고 힘있게 내밀고있다.

군당위원회는 창성사람들은 창성땅에서 일하기도 좋고 살기도 좋은 사회주의락원을 건설하여야 한다는 우리 당의 숭고한 뜻을 철저히 관철하기 위하여 산중부원을 더욱 높이고 효과있게 리용하며 읍지구를 비롯한 리들에 살림집들과 공공건물들을 더 많이 건설하고 도로의 면모를 개선하기 위한 혁명적인 대책도 세워나가고있다. 또한 옥포축산전문협동농장의 모범을 널리 일반화하여 알곡생산과 축산에서 일대 혁신을 일으키기 위한 대책도 구체적으로 세워나가고있다.

군당위원회는 군안의 일군들과 당원들과 근로자들속에서 아버지수령님의 불멸의 령도업적을 깊이 체득시키기 위한 사상교양사업에 큰 힘을 넣어 대중의 정신력을 최대한으로 높여주기 위한 통이 큰 작전을 펼쳐

본사기자 최시흠

얼마전 만경대피복공장 지배인을 만나 생전에 대한 이야기를 나눌 때였다.

공장에서 올해에도 대혁신, 대비약이 일어나고있는 주되는 비결을 묻는 나에게 그는 이렇게 말하는것이였다.

《우리 초급당비서동무가 1970년대 당의 기초축성시기 일군들처럼 사업하고있기때문입니다.》

불편한 나에게는 1970년대는 말의 의미가 새롭게 부각되며 깊은 총동을 불러일으켰다.

한편 흘러간 시간은 되돌아

우선 없다. 그래서 사람들은 세월을 흐르는 물에 비기기도 하고 날아가는 화살에 비기기도 한다.

단상

영원한 년대

그런데 그가 말하는 1970년대, 그것을 어찌 지나온 년대라고만 할 수 있겠나.

력사적인 2월 19일로작이 발표되어 우리 당사상사업에서 일대 변혁이 일어났던 때로부터

40년의 세월이 흘렀다. 하지만 격동의 1970년대는 결코 지나간 것이 아니다. 지나간 역사에 추억의 년대로만

그들처럼 살며 투쟁하려는 생활이 대고조적진장 어디에서나 살고있다. 세기가 바뀌고 투쟁환경은 달라졌어도 일군들 누구나 그들을 거울처럼 비춰보며 자신들을 부단히 체격질하고있다.

그렇다.

1970년대는 결코 지나간 세월이 아니다. 그것은 위대한 장군님을 받들어 어떻게 일해야 하는가를 끝없이 깨우쳐주고 이끌어주며 언제나 우리앞에 있는 영원한 현대가 아니겠는가.

본사기자 리종석

그들처럼 살며 투쟁하려는 생활이 대고조적진장 어디에서나 살고있다. 세기가 바뀌고 투쟁환경은 달라졌어도 일군들 누구나 그들을 거울처럼 비춰보며 자신들을 부단히 체격질하고있다.

그렇다.

1970년대는 결코 지나간 세월이 아니다. 그것은 위대한 장군님을 받들어 어떻게 일해야 하는가를 끝없이 깨우쳐주고 이끌어주며 언제나 우리앞에 있는 영원한 현대가 아니겠는가.

본사기자 리종석



위대한 장군님의 령도따라 주체혁명위업의 종국적승리를 위하여 힘차게 싸워나갈 불타는 결의에 넘쳐있다. —평양자동화기구공장에서— 본사기자 장정일 찍음

역사적인 당대표자회의후 우리 당사상일군들의 투쟁방식에서는 근본적인 전환이 일어나고있다. 최천시 역평협동농장 초급당위원회 일군들의 사업이 그 생동한 실체로 된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사상교양사업은 하나를 하여도 사람들의 심금을 울리도록 실속있게 하여야 합니다.》

올해공동사업에서 제시된 전투적과업과 생산들적으로 부른 김철의 호소는 총공전에 펼쳐진 이윽고 농장일군들의 흥분되어서 새치게 두드렸다.

그들은 인민생활문제해결의 생명선인 농업건설을 지켜왔다. 그 무거운 책임감을 안고 올해 농사를 본태있게 짓기 위하여 작업반, 분조별사회주의경쟁의 불길도 세차게 지펴올렸다. 새 전투명령이 하달되자 모

든 작업반, 분조의 농장원들은 일제히 출발선을 차고일어나 달려가 시작하였다. 하지만 일정한 시간이 흐르자 거름생산량과 질에서는 차이가 생기기 시작하였다. 이 문제를 두고 이윽고 초급당위원회일군들은 그 해결방도를 찾기 위해 사색을 같이하였다. 문제해결의 열쇠는 대중속에 있었다.

초급당위원회일군들이 뒤엎어진 단위를 회고했다.

축산작업반, 남새재 3작업반 1분조...

일부 초급일군들은 자기 단위가 뒤지고있는 원인이 농사조건이 불리한데 있다고 말하였다. 하지만 초급당위원회일군들은 당사상사업에 맡은 자신들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했는지 되돌아보았다.

—항일유격대식정치사업, 경제선전의 화포를 더 세차게 쏘아대는 방법으로 이 단위

러 40년의 세월이 흘렀다. 하지만 격동의 1970년대는 결코 지나간 것이 아니다. 지나간 역사에 추억의 년대로만

그들처럼 살며 투쟁하려는 생활이 대고조적진장 어디에서나 살고있다. 세기가 바뀌고 투쟁환경은 달라졌어도 일군들 누구나 그들을 거울처럼 비춰보며 자신들을 부단히 체격질하고있다.

그렇다.

1970년대는 결코 지나간 세월이 아니다. 그것은 위대한 장군님을 받들어 어떻게 일해야 하는가를 끝없이 깨우쳐주고 이끌어주며 언제나 우리앞에 있는 영원한 현대가 아니겠는가.

본사기자 리종석

몇달 밤이 따로 없이 진행된 포전집중정치사업은 열흘동안 계속되었다.

이에 고무된 축산작업반의 초급일군들이 분발하였고 남새재 3작업반 1분조가 펼쳐나갔다. 이런 열정의 불길은 뜻깊은 2월에 들어서면서 더욱 세차게 타올랐다.

격동적인 시대의 요구에 맞는 초급당위원회일군들의 참신한 사상교양사업은 높은 실적으로 이어졌다. 아버지수령님의 불멸의 령도업적이 뜨겁게 깃들여있는 이 농장이 시적으로도 농사차비에서 단연 앞선 단위로 자랑을 떨치기 되었다.

이곳 초급당위원회일군들의 사업은 당사상사업을 책임진 일군들로 하여금 당의 사상과 령도업적을 빛내는데서 당원일군들의 투쟁과 일본새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다시 한번 잘 보여주었다.

본사기자 전경서

덕성탄광 초급당위원회에서는 당원들과 전투들이 신념의 노래 높이 부르며 올해의 총공전을 힘있게 다그쳐나가도록 하기 위한 정치사업을 매기있게 전개해나가고있다.

초급당위원회에서는 특히 올해의 첫 전군과 더불어 당보에 실려야 할 찬란한 혁명위업을 기어올려 장군님의 령도업적을 승리로 떨쳐나가는

덕성탄광 초급당위원회에서

의 정신력을 더욱 폭발시키기 위한 사업을 잘해나가고 있다. 초급당위원회일군들이 들끓는 광장들에서 노래를 통한 정치사업을 화신으로 기백있게 벌려나가고있다.

아버지수령님 따라서 시작한 혁명위업을 기어올려 장군님의 령도업적을 승리로 떨쳐나가는

는 기동예술선동대원들이 그 노래를 취조약으로 울리게 하는 한편 특색있는 합창경연으로 온 단원이 들끓게 하고있다. 이에 고무된 탄광의 당원들과 전투들은 노래 《승리의 길》을 심장으로 부르며 또 부르며 날에날마다 혁신과 위훈을 창조해나가고있다.

로동통신원 연전행

업도 활발히 벌려나가고있다.

초급당위원회에서

의 정신력을 더욱 폭발시키기 위한 사업을 잘해나가고 있다. 초급당위원회일군들이 들끓는 광장들에서 노래를 통한 정치사업을 화신으로 기백있게 벌려나가고있다.

아버지수령님 따라서 시작한 혁명위업을 기어올려 장군님의 령도업적을 승리로 떨쳐나가는

## 농기계수리를 제때에

공공시설의 전투적과업을 받아안은 흥원군농기계작업소의 일군들과 기술자, 로동자들이 농기계수리와 부속품생산에서 현일 혁신을 일으키고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농기계작업소에서 트랙터의 리용률을 높이도록 하여야 합니다.》

지배인을 비롯한 작업소의 일군들은 기술자, 로동자들속에 들어가 올해농사차비를 다그치는데서 농기계들의 가동성을 높이는것이 가지는 중요성을 알려주면서 농기계수리목표를 높이 세우고 그 실현을 위

한 조직사업을 면밀하게 짜고 들고있다.

새해에 들어와 많은 농기계들을 수리한 이곳 기술자, 로동자들은 성과가 자만함이 없이 자체의 힘으로 대용연료를 리용하여 전기를 생산하면서 농기계수리에 박차를 가하고있다. 트랙터수리작업반원들은 맡은 임무의 중요성을 깊이 자각하고 날마다 실적을 올리고있다.

이들은 가치있는 기술혁신안을 적극 받아들여 트랙터수리속도를 부쩍 높이고있다. 공무작업반에서도 집단적혁신을 일으키고있다. 기술혁신을 부속품생산을 늘

이것을 위한 중요한 방도의 하나로 내세운 이곳 기술자, 로동자들은 서로의 창조적지혜와 힘을 합쳐가며 내부예비를 동원하여 농기계부속품생산에 힘있게 다그치고있다.

농기계수리작업반원들도 올해 알곡생산에 이바지할 뜨거운 마음을 안고 지혜와 열정을 다 바쳐가고있다.

사회주의협동농에 기계화의 동음이 더욱 높이 울리게 하려는 일군들과 기술자, 로동자들의 헌신적인 노력에 의하여 트랙터로를 비롯한 농기계들의 수리와 부속품생산은 힘있게 다그쳐지고있다.

본사기자 홍성철

강남군안의 일군들과 농업근로자들이 인민생활문제해결의 생명선을 지켜선 높은 자각을 안고 한결같이 펼쳐나가는 농사차비에서 성과가 울려나오는 농사차비에 힘을 넣고있다.

다만 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농사차비를 잘하는것은 한해농사의 성과를 좌우하는 중요한 사안입니다.》

군당위원회에서는 군안의 농업부문을 일군들과 근로자들이 농업생산에서 변혁을 일으켜

강남군의 협동농장들에서

우리 식 사회주의의 우월성을 높이 발양시킬데 대한 공동사업의 과업을 심장에 새겨놓고 농사차비에서 뚜렷한 혁신을 일으키도록 하기 위한 조직정치사업을 힘있게 벌리고있다.

군협동농장경영위원회의 일군들은 흠부산비료를 비롯한 각종생물에서 제기되는 과학기술적문제들을 제때에 농장일군들과 농장원들속에 알려주어 그들이 한층더 높은 생산성도 높여줄 수 있도록 하도록 하겠다.

강남군의 협동농장들에서

우리 식 사회주의의 우월성을 높이 발양시킬데 대한 공동사업의 과업을 심장에 새겨놓고 농사차비에서 뚜렷한 혁신을 일으키도록 하기 위한 조직정치사업을 힘있게 벌리고있다.

군협동농장경영위원회의 일군들은 흠부산비료를 비롯한 각종생물에서 제기되는 과학기술적문제들을 제때에 농장일군들과 농장원들속에 알려주어 그들이 한층더 높은 생산성도 높여줄 수 있도록 하도록 하겠다.

단들이 동원되고 트랙터와 소달구지들을 보다 효과적으로 리용하기 위한 여러가지 방법들도 탐구되고있다. 이산, 공음, 영진, 읍, 당국협동농장을 비롯한 협동농장들에서는 거름실어내기일정계획을 바로세우고 매일 거름실어내기에서 성과를 거두고있다.

군안의 일군들과 농장원들의 적극적인 투쟁에 의하여 지금군의 거름생산과 실어내기실적은 지난해에 달한 시기에 비해 1.2배에 달하고있다.

특파기자 김천일

단들이 동원되고 트랙터와 소달구지들을 보다 효과적으로 리용하기 위한 여러가지 방법들도 탐구되고있다. 이산, 공음, 영진, 읍, 당국협동농장을 비롯한 협동농장들에서는 거름실어내기일정계획을 바로세우고 매일 거름실어내기에서 성과를 거두고있다.

군안의 일군들과 농장원들의 적극적인 투쟁에 의하여 지금군의 거름생산과 실어내기실적은 지난해에 달한 시기에 비해 1.2배에 달하고있다.

특파기자 김천일

## 자기 힘을 믿고

공정에는 자랑도 많았다. 공장의 일군들과 로동계급은 제정을 믿고 떨쳐나서면 못해낼 일이 없다는 각오를 가지고 공장을 현대화하고 생산능력을 지난 시기보다 2배로 높일 대단한 목표를 세우고 그 실현을 위한 투쟁을 줄기차게 벌려왔다.

공장일군들은 기술혁신의 주인공인 로동자, 기술자들이 현대적과학기술을 기초로 자력갱생의 원칙에서 공장에 필요한 설비들을 대량히 제조하는데만 들도록 그들의 정신력을 총발동하는 정치사업, 사람과의 사업을 참신하게 벌려왔다.

그들은 기술자들의 자그마한 실패도 귀중히 여겨주고 적극 지지해주었으며 기술혁신의 앞장에 선 기술자, 기능공들을 내세워주고 높이 평가해주어 대중적기술혁신의 불길이 세차게 타탄지도록 하였

자기 힘을 믿고

공정에는 자랑도 많았다. 공장의 일군들과 로동계급은 제정을 믿고 떨쳐나서면 못해낼 일이 없다는 각오를 가지고 공장을 현대화하고 생산능력을 지난 시기보다 2배로 높일 대단한 목표를 세우고 그 실현을 위한 투쟁을 줄기차게 벌려왔다.

공장일군들은 기술혁신의 주인공인 로동자, 기술자들이 현대적과학기술을 기초로 자력갱생의 원칙에서 공장에 필요한 설비들을 대량히 제조하는데만 들도록 그들의 정신력을 총발동하는 정치사업, 사람과의 사업을 참신하게 벌려왔다.

그들은 기술자들의 자그마한 실패도 귀중히 여겨주고 적극 지지해주었으며 기술혁신의 앞장에 선 기술자, 기능공들을 내세워주고 높이 평가해주어 대중적기술혁신의 불길이 세차게 타탄지도록 하였

공정에는 자랑도 많았다. 공장의 일군들과 로동계급은 제정을 믿고 떨쳐나서면 못해낼 일이 없다는 각오를 가지고 공장을 현대화하고 생산능력을 지난 시기보다 2배로 높일 대단한 목표를 세우고 그 실현을 위한 투쟁을 줄기차게 벌려왔다.

공장일군들은 기술혁신의 주인공인 로동자, 기술자들이 현대적과학기술을 기초로 자력갱생의 원칙에서 공장에 필요한 설비들을 대량히 제조하는데만 들도록 그들의 정신력을 총발동하는 정치사업, 사람과의 사업을 참신하게 벌려왔다.

그들은 기술자들의 자그마한 실패도 귀중히 여겨주고 적극 지지해주었으며 기술혁신의 앞장에 선 기술자, 기능공들을 내세워주고 높이 평가해주어 대중적기술혁신의 불길이 세차게 타탄지도록 하였

공정에는 자랑도 많았다. 공장의 일군들과 로동계급은 제정을 믿고 떨쳐나서면 못해낼 일이 없다는 각오를 가지고 공장을 현대화하고 생산능력을 지난 시기보다 2배로 높일 대단한 목표를 세우고 그 실현을 위한 투쟁을 줄기차게 벌려왔다.

공장일군들은 기술혁신의 주인공인 로동자, 기술자들이 현대적과학기술을 기초로 자력갱생의 원칙에서 공장에 필요한 설비들을 대량히 제조하는데만 들도록 그들의 정신력을 총발동하는 정치사업, 사람과의 사업을 참신하게 벌려왔다.

그들은 기술자들의 자그마한 실패도 귀중히 여겨주고 적극 지지해주었으며 기술혁신의 앞장에 선 기술자, 기능공들을 내세워주고 높이 평가해주어 대중적기술혁신의 불길이 세차게 타탄지도록 하였

공정에는 자랑도 많았다. 공장의 일군들과 로동계급은 제정을 믿고 떨쳐나서면 못해낼 일이 없다는 각오를 가지고 공장을 현대화하고 생산능력을 지난 시기보다 2배로 높일 대단한 목표를 세우고 그 실현을 위한 투쟁을 줄기차게 벌려왔다.

공장일군들은 기술혁신의 주인공인 로동자, 기술자들이 현대적과학기술을 기초로 자력갱생의 원칙에서 공장에 필요한 설비들을 대량히 제조하는데만 들도록 그들의 정신력을 총발동하는 정치사업, 사람과의 사업을 참신하게 벌려왔다.

그들은 기술자들의 자그마한 실패도 귀중히 여겨주고 적극 지지해주었으며 기술혁신의 앞장에 선 기술자, 기능공들을 내세워주고 높이 평가해주어 대중적기술혁신의 불길이 세차게 타탄지도록 하였

공정에는 자랑도 많았다. 공장의 일군들과 로동계급은 제정을 믿고 떨쳐나서면 못해낼 일이 없다는 각오를 가지고 공장을 현대화하고 생산능력을 지난 시기보다 2배로 높일 대단한 목표를 세우고 그 실현을 위한 투쟁을 줄기차게 벌려왔다.

공장일군들은 기술혁신의 주인공인 로동자, 기술자들이 현대적과학기술을 기초로 자력갱생의 원칙에서 공장에 필요한 설비들을 대량히 제조하는데만 들도록 그들의 정신력을 총발동하는 정치사업, 사람과의 사업을 참신하게 벌려왔다.

그들은 기술자들의 자그마한 실패도 귀중히 여겨주고 적극 지지해주었으며 기술혁신의 앞장에 선 기술자, 기능공들을 내세워주고 높이 평가해주어 대중적기술혁신의 불길이 세차게 타탄지도록 하였

공정에는 자랑도 많았다. 공장의 일군들과 로동계급은 제정을 믿고 떨쳐나서면 못해낼 일이 없다는 각오를 가지고 공장을 현대화하고 생산능력을 지난 시기보다 2배로 높일 대단한 목표를 세우고 그 실현을 위한 투쟁을 줄기차게 벌려왔다.

공장일군들은 기술혁신의 주인공인 로동자, 기술자들이 현대적과학기술을 기초로 자력갱생의 원칙에서 공장에 필요한 설비들을 대량히 제조하는데만 들도록 그들의 정신력을 총발동하는 정치사업, 사람과의 사업을 참신하게 벌려왔다.

그들은 기술자들의 자그마한 실패도 귀중히 여겨주고 적극 지지해주었으며 기술혁신의 앞장에 선 기술자, 기능공들을 내세워주고 높이 평가해주어 대중적기술혁신의 불길이 세차게 타탄지도록 하였

공정에는 자랑도 많았다. 공장의 일군들과 로동계급은 제정을 믿고 떨쳐나서면 못해낼 일이 없다는 각오를 가지고 공장을 현대화하고 생산능력을 지난 시기보다 2배로 높일 대단한 목표를 세우고 그 실현을 위한 투쟁을 줄기차게 벌려왔다.

공장일군들은 기술혁신의 주인공인 로동자, 기술자들이 현대적과학기술을 기초로 자력갱생의 원칙에서 공장에 필요한 설비들을 대량히 제조하는데만 들도록 그들의 정신력을 총발동하는 정치사업, 사람과의 사업을 참신하게 벌려왔다.

그들은 기술자들의 자그마한 실패도 귀중히 여겨주고 적극 지지해주었으며 기술혁신의 앞장에 선 기술자, 기능공들을 내세워주고 높이 평가해주어 대중적기술혁신의 불길이 세차게 타탄지도록 하였





# 위대한 선군령장을 모신것은 조선인민의 최대의 행운

## 경사스러운 2월의 명절에 즈음하여

### 여러 나라 정당, 정부 성, 단체, 각계 인사들이 우리 나라 대표부에 꽃바구니를 보내여왔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탄생일을 축하하여 캄보디아인민당, 룬넬예당, 외무 및 국제협력조정, 국방성, 왕궁성, 태권도협회, 영국공산당(맑스-레닌주의) 중앙위원회, 메히오인민사회당, 사회주의인민당, 사회당, 김일성주의연구위원회, 주체사상연구소, 주체사상연구회, 메히오전국조직원위원회, 김일성주석회, 메히오친우협회, 조선통일지지 메히오위원회, 메히오조선친선협회, 중국홍콩 인종구체적유익유한공사, 엠페리그룹, 금리펀펀사상유한공사를 비롯한 여러 회사들과 국제김일성기념 그리고

김정일명도자는 사상리론의 대가, 사상중심의 정치가이다. 그이께서 펼치시는 독창적인 선군정치적은 바로 그의 투철한 사상론의 구현이라고 할수 있다. 그는 반체제주위업을 끝마친 승리의 한길로 이끄시는 진보적 인류의 위대한 령도자이다. 세계는 조선에 펼쳐진 자랑찬 현실과 경이적인 사변을 통하여 선군정치의 위대성과 생활력, 정당성을 실감하고있다. 조선의 근대와 인민이 김정일동지의 선군정치를 높이 받들고 강성대국건설과 나라의 자주적평화통일위업수행에서 보다 큰 성과를 거두기 바란다.

### 신문, 잡지, 인터넷홈페이지에 특집

2월의 명절에 즈음하여 스페리에 잡지와 영국 인터넷홈페이지에 특집하였다. 스페리에조선친선협회 잡지 《조선통보》 제1호는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사진을 모시고 《고무적인 지도자》라는 제목의 글을 게재하였다. 잡지는 글에서 다음과 같이 강조하였다. 김정일동지의 령도밑에 조선은 강력하고 안정된 사회주의 국가, 반체, 자주, 평화의 성새로서의 지위를 강화하고 조선인민자체의 힘으로 자주적평화통일을 이룩하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이고있다. 김정일동지께서는 끊임없는 현지지도로 강성대국을 건설하기 위한 조선인민의 투쟁을 승리로 이끌고계신다. 그이께서는 지난해 전체 조선인민의 한결같은 념념속에 조선노동당 총비서로서 또다시 추대되셨다. 그이께서 조선노동당 총비서로서

김정일명도자는 사상리론의 대가, 사상중심의 정치가이다. 그이께서 펼치시는 독창적인 선군정치적은 바로 그의 투철한 사상론의 구현이라고 할수 있다. 그는 반체제주위업을 끝마친 승리의 한길로 이끄시는 진보적 인류의 위대한 령도자이다. 세계는 조선에 펼쳐진 자랑찬 현실과 경이적인 사변을 통하여 선군정치의 위대성과 생활력, 정당성을 실감하고있다. 조선의 근대와 인민이 김정일동지의 선군정치를 높이 받들고 강성대국건설과 나라의 자주적평화통일위업수행에서 보다 큰 성과를 거두기 바란다.

### 세계에는 많은 나라들이 있으며 나라마다 자기의 민족적 명절이 있고 국제적인 명절도 있다.

2월의 명절에 즈음하여 에티오피아, 수리아, 보르두갈 인사가 담화를 발표하였다. 에티오피아정권주체사상연구위원회 위원장 나가무 다그나체우는 10일 담화에서 김정일각하의 탄생은 조선인민과 세계피압박인민들에게 자주사회의 령명을 안겨주어 위대한 령도자사변이었다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강조하였다. 김정일각하께서는 세계정치의 원로이신 김일성주석께서 창시하신 주체사상을 자주사회의 요구에 맞게 발전통부화하셨으며 조선의 현실에 빛나게 구현하시어 조선인민주의인민공화국을 자주의 강국으로 전진시키셨다. 그이께서는 진보적인류가 주체사상의 가치를 따라 세계자주화를 실현하기 위한 투쟁에 힘써주시어 세계정세를 주도해나오셨다. 그이께서는 독특한 선군정치로 조선인민의 강성대국건설투쟁을 진두에서 지휘하시며 조선인민주의의인민공화국의 존엄을 높이 떨치고계신다. 그이를 당과 국가의 최고수위에 높이 모신 조선인민은 정말 행복한 인민이다. 나는 김정일각하의 선군명도 밑에 조선인민이 가까운 앞날에 강성대국을 기어 건설하리라 굳게 굳고 있다. **본사기자**

삼강국, 군사강국의 지위에 올려세우고 자기의 세계적지위를 가장 훌륭히 실현시켜주는 김정일명도자께 뜨거운 감사를 드리면서 그이를 모신것을 최상의 영광, 최대의 행운으로 여기고있다고 신문은 전하였다.

### 각계 인사들 담화 발표

수리아 디마스즈종합대학 정치학부 강좌장 쎬베르 발발은 13일 담화에서 2월 16일은 조선인민뿐 아니라 자유와 독립을 바라는 전세계인민의 마음속에 간직된 뜻깊은 날이라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격려했다. 김정일명도자께서는 주체사상, 선군사상을 구현하시어 조선의 령사에 승리를 아로새기셨다. 그의 령명 한 령도밑에 조선은 무엇이든 결심하면 다 해내는 강한 나라로 전변되었다. 하기에 세계평화에 호인민들은 조선에 진보와 번영으로 이끄시는 김정일각하의 탄생일을 가장 뜻깊게 경축하고있다. 보르두갈조선친선협회 위원장 미겔 보에아에르는 14일 담화에서 다음과 같이 언급하였다. 김정일명도자께서는 김정일주석의 위업을 이어 조선에 사회주의강성대국을 일떠세우기 위하여 현지지도강행군길을 쉬임없이 걸으신다. 조선인민은 인민생활향상과 경제강국건설을 위한 총진군에 떨쳐나섰다. 김정일주석의 평생소원, 김정일명도자의 리상이 조선에서 현실로 펼쳐지고있다. **본사기자**

### 기념행사 진행

2월의 명절에 즈음하여 라오스, 몽골, 방글라데시, 파키스탄, 인디아에서 경축집회, 사진전시회, 영화감상회가 7일과 9일에 진행되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불멸의 업적을 보여주는 사진들과 선군조선에 소개하는 사진들이 행사장들에 전시되어있었다. 행사들에는 해당 나라의 정계, 사회계인사들이 참가하였으며 우리 나라 특명전권대사와 대사관직원들이 초대되었다. 영화감상회들에서는 《평양의 밤》, 《강성대국의 불보라》를 비롯한 우리 나라 영화들이 상영되었다. 라오스인민혁명청년동맹 중앙위원회 비서는 조선인민주의의 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위원장이신 조선인민의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탄생일을

### 세계식량위기를 더욱 격화시키는 생물연료생산

이른들은 만일 미국의 그 계획이 계속 추진되는 경우 2025년에 가서 세계적으로 기아에 허덕이는 사람들의 수가 12억명에 늘어날 수 있다고 하면서 커다란 우려를 표시하고있다. 베네수엘라대통령 우고 차베스 프리아스는 미국의 생물연료생산계획이 라틴아메리카의 여러 나라에서 식량위기를 더욱 격화시킬 수 있는데 대해 까발리고 사람들을 굶기면서 식량으로 생물연료를 생산한다는것은 황당하것이라고 규탄하였다. 심각한 식량난으로 세계를 물가면서 자기의 리속만을 추구하는 미국의 생물연료생산계획은 국제사회의 보다 큰 항의와 규탄을 불러일으킬것이다. **본사기자**

### 자주적인 삶을 위하여

중국에서 중국 료병원에서 지난 5년동안 2692만부의 산림을 새로 조성하였다. 그리하여 현재 조성된 산림면적은 8208만무로 늘어났다. 이에 따라 성에서 사막화 현상이 현저히 줄어들게 되었다. 중국 호북성에서 지난 5년동안 1652만 9000무에 달하는 농촌주민들의 먹거리 문제를 해결하였다. 이 기간 성에서는 농촌지역들에 먹는물공급시설을 많이 건설하였다. 중국 절강성에서 9월 10만여명의 간부들이 각지 농촌들에 나가 나무심기를 진행하였다. 이것은 성에서 율력철수이후 첫날을 당과 정부, 군대간부들의 의무식사의 날로 하기로 한데 따른것이다. **본사기자**

### 자주적인 삶을 위하여

중국 료병원에서 지난 5년동안 2692만부의 산림을 새로 조성하였다. 그리하여 현재 조성된 산림면적은 8208만무로 늘어났다. 이에 따라 성에서 사막화 현상이 현저히 줄어들게 되었다. 중국 호북성에서 지난 5년동안 1652만 9000무에 달하는 농촌주민들의 먹거리 문제를 해결하였다. 이 기간 성에서는 농촌지역들에 먹는물공급시설을 많이 건설하였다. 중국 절강성에서 9월 10만여명의 간부들이 각지 농촌들에 나가 나무심기를 진행하였다. 이것은 성에서 율력철수이후 첫날을 당과 정부, 군대간부들의 의무식사의 날로 하기로 한데 따른것이다. **본사기자**

### 범죄적인 강행에 숨은 기로

《반테로》를 제창하는 미국이 국제테러분자 보사까리베스를 계속 비호하면서 세계면전에서 스스로 저들의 본색을 드러내고있다. 지난 1월 미국은 국제사회의 항의와 압력에 못이겨 마지못해 테사스주의 한 재판소에서 이자에 대한 재판을 시작하였다. 알러진바와 같이 쿠바태생인 보사까리는 1976년에 바베이도스 해안상공에서 쿠바리객기를 폭파시켜 73명의 무고한 민간인들이 목숨을 잃게 한것을 중죄를 배반하고 수다한 테로 및 살인행위를 감행한 극악한 범죄자이다. 미국은 쿠바와 베네수엘라의 무조건적인 승환요구를 무시하고 《보사》이라는 구실없이 보사까리를 석방해놓고있으며 그에게 대한 재판을 해를 넘기며 지연시키려고 하였다. 이번에 재판이 시작되자마자

### 이שראל의 불법무도한 행위 고소

레바논의 무 및 이민성이 10일 유엔안보리사회에 이שראל의 불법무도한 행위에 관한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고소장은 지난 1월 이שראל군이 레바논의 남부국경지역에서 제멋대로 울타리를 치고 레바논군소소를 폭화촬영하면서 군인들에게 육살을 퍼붓는 등 망동을 무리대 대해 까발리고 그것을 레바논의 주권을 침해하고 유엔결의를 위반한 도발행위로 략인, 단죄하였다. **본사기자**

### 전염병, 자연교해

요르단에서도 A(H1N1)형독감감기에 의한 피해가 확대되고있다. 11일 이 나라 보건성은 지금까지 전국적으로 등록된 신형독감환자가 377명으로 늘어났으며 그중 14명이 사망하였다고 밝혔다. **본사기자**

### 서방의 사상문화적침투를 막기 위한 노력

중국에서는 미성년들의 네트워크이용과 관련하여도 건전한 정보문화로 사용하도록 하기 위한 조치들이 취해지고있다. 중국의 해당 부문에서는 부모들이 아이들의 네트워크이용 활동을 료해하고 통제하며 부모들의 요구에 따라 미성년들의 컴퓨터등에 대해 제한조치를 취하도록 하고있다. 또한 부모들이 아이들의 네트워크이용 행위를 지속적으로 관찰하며 미성년들의 부당한 게임활동을 단속하도록 하기 위한 대책을 취하고있다. **본사기자**

### 경제 침체

일본에서 지난해 4.4분기 국내총생산이 그전해 같은 분기에 비해 1.1% 감소되었다. 14일 일본내각부가 조사자료를 인용하여 이에 대해 밝혔다. 한편 10일 이 나라 재무성이 밝힌데 의하면 일본에서 지난해 12월까지 국가채무가

### 세계식량위기를 더욱 격화시키는 생물연료생산

이른들은 만일 미국의 그 계획이 계속 추진되는 경우 2025년에 가서 세계적으로 기아에 허덕이는 사람들의 수가 12억명에 늘어날 수 있다고 하면서 커다란 우려를 표시하고있다. 베네수엘라대통령 우고 차베스 프리아스는 미국의 생물연료생산계획이 라틴아메리카의 여러 나라에서 식량위기를 더욱 격화시킬 수 있는데 대해 까발리고 사람들을 굶기면서 식량으로 생물연료를 생산한다는것은 황당하것이라고 규탄하였다. 심각한 식량난으로 세계를 물가면서 자기의 리속만을 추구하는 미국의 생물연료생산계획은 국제사회의 보다 큰 항의와 규탄을 불러일으킬것이다. **본사기자**

### 이שראל의 불법무도한 행위 고소

레바논의 무 및 이민성이 10일 유엔안보리사회에 이שראל의 불법무도한 행위에 관한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고소장은 지난 1월 이שראל군이 레바논의 남부국경지역에서 제멋대로 울타리를 치고 레바논군소소를 폭화촬영하면서 군인들에게 육살을 퍼붓는 등 망동을 무리대 대해 까발리고 그것을 레바논의 주권을 침해하고 유엔결의를 위반한 도발행위로 략인, 단죄하였다. **본사기자**

### 전염병, 자연교해

요르단에서도 A(H1N1)형독감감기에 의한 피해가 확대되고있다. 11일 이 나라 보건성은 지금까지 전국적으로 등록된 신형독감환자가 377명으로 늘어났으며 그중 14명이 사망하였다고 밝혔다. **본사기자**